

치 사

음악을 통해 부처님을 찬탄하며 세상에 불법을 전하는 ‘2013 불교합창 페스티벌’이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으로 성황리에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교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음악인들과 불자들이 함께하는 오늘의 축제는 한국 불교음악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불교합창페스티벌은 전국에서 모인 여러 불자들이 돈독한 신심과 맑은 영혼을 담은 음악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이면서 저마다의 소중한 정진의 장과도 같습니다. 참가한 모든 불자들이 경쟁을 떠나 한 마음으로 즐기고 서로 격려하는 행사로 회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고가 깃들여 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 음악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불교 음악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서는 불교문화, 특히 불교음악의 현대화를 통하여 대중의 감화를 이끌어 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애정과 노력이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큰 초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고귀한 축제를 함께 하는 합창단과 지휘자, 그리고 가족여러분께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드리며, 그동안 연습하면서 숨겨놓은 실력까지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11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